

中原地方의 佛教美術

秦弘燮

一、

忠州를 중심한 지역 일대를 「中原」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新羅時代 이래의 일이다. 中原은 본래 高句麗의 國原城이던 것을 新羅가 取하고 眞興王 十八년에 小京을 설치하였으며 景德王 때 높여서 「中原京」이라 하다가 高麗太祖 二十三年 忠州로 고치게 되었다. 따라서 新羅가 取하기 전에는 高句麗의 文化도 침투되었을 것이고 眞興王이 小京을 설치하고는 「徙貴戚子弟及六部豪民以實之」하였으니 新羅文化가 이곳에 과급되었을 것은 당연하다. 忠州에서 지근 거리인 中原郡 可金面에서 高句麗時代의 斷碑가 발견되고 丹陽邑에서 新羅赤城碑가 발견되었음은 그럴만한 歷史的 배경이 있었던 까닭이다.

이후 新羅·高麗를 통하여 忠州는 중요시되었으니 夗연 新羅 文武王 때에는 周二五九二步의 城을 쌓았고 壬亂 때 申位의 분전 또한 유명하다. 文化的으로 보아도 眞興王 때 于勒이 伽倻琴을 즐겨 타던 곳 또한 忠州 達川가의 彈琴臺였고 北方의 先進한 文化가 小白山脈을 넘어 南下할 때도 忠州는 중요한 거점의 하나였으니 忠州에서 鳥嶺을 넘어 聞慶·咸昌·尙州·善山을 거쳐 慶州에 이르는 길과 忠州에서 丹陽을 거쳐 竹嶺을 넘어서 榮州·安東·義城·軍威를 지나 慶州에 이르는 두가지 길에 있었고 특히 佛敎文化에 관하여는 이 두 통로는 매우 중요한역

할을 하여 이 통로상의 처처에 佛敎遺蹟을 남겼으며 그 여운은 高麗時代까지 이어져 忠州를 중심한 인근지역에 수 많은 寺刹이 건립되었고 이 寺址에 전하는 遺蹟을 통하여 그 규모나 寺格을 짐작케 한다.

二、

一九一五年 中原郡 老隱面에서 建興五年銘金銅釋迦三尊佛 光背가 발견되었다. 이 光背는 中尊佛이 없어졌으나 背面에 다음과 같은 銘文이 陰刻되어서 매우 주목되어 왔다.

建興五年歲在丙辰
佛弟子清信女上部

兒奄造釋迦文像

願生生世世值佛聞

法一切衆生同此願(圖 一·二)

발견자인 黑板勝美氏는 이 佛像을 百濟佛로 인정하였으나 일부에서는 「建興」을 高句麗의 逸年號로 보았고 「丙辰」을 근거로 造成年代를 서기 五九六年으로 推定하는 등 ① 造成國家나 造成年代의 추정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듯하다 ②.

三、

新羅가 三國을 통일한 후에도 中原은 여전히 중요시되었으니 전술한 대로 景德王代에 小京을 높혀 「京」으로 삼은 데서도 짐작되거니와 그러한 추세에 의해서인지 佛敎文化 또한 성황을 이루어 현존하는 유물을 통해서도 그 일단을 짐작할 수 있다. 中原塔坪里七層石塔과 中原鳳凰里磨崖佛이 그것이니 이 두 遺蹟은 모두 忠州에서 一〇km 내외의 가까운 거리에 있고 다 같이 統初의 遺蹟들이다.

塔坪里七層石塔은(圖 三) 우리나라 中央部에 위치한다고 하여 「中央

塔」이라고도 부르고 있거나와 一九一七年 解體修理를 거쳤고, 이修理에서 발견된 舍利莊嚴具 중에 高麗時代 遺物이 포함되어 있었음으로 현재의 상태가 어느 정도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불명이나 ③ 新羅石塔으로서는 異例의 巨塔이다. 특히 漢江上流 강변에 잡았다는 점 외에도 높은 토단을 모은 위에 건립되어 塔 자체의 높이보다도 훨씬 더 높아보이는 점은 그러한 기초시설의 의도적이었던지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현재의 경관은 매우 웅장해 보인다. 이 塔의 건립연대에 관하여는 神文王代(六八一—六九二)와 八세기말 등으로 갈려서 정설을 찾기 어려우나 ④ 여하튼 이 塔은 忠州의 기념비적인 존재이며 이 지점에서 불과 수 km 지점에 高句麗碑가(圖四) 세워졌고 또 七세기경으로 추정되는 三群의 磨崖佛이 造成되었음에도 그 자체가 중요할 뿐 아니라 塔坪里塔 또한 이러한 文化的 배경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三群의 磨崖佛은 塔과 동일지역인 可金面 鳳凰里 헛골산에 거의 東向한 岩面에 조각되었다 ⑤.

그 중 一群은 半跏像을 중심으로 五軀의 菩薩像이 조각되었다.(圖五) 半跏像은 左足を 내리고 左手로는 左膝上的의 右足を 잡고 右腕은 右膝 위에 얹어 右手의 손가락을 모두 꾸부린 채 마디로 턱을 고이고 있다. 좌우에는 半跏像을 향한 立像 二軀가 있어 左右脇侍菩薩로 보이며 右菩薩과 半跏像 사이에 또 一像이 있거나 가려져 上半身만 보이고 右菩薩 右側으로 또 二軀가 있어 半跏像에 가까운 像은 半跏像 쪽으로 몸을 약간 돌렸고 다음 像은 正面이 되 左手를 들어 半跏像 쪽을 가리키고 있어 그 쪽으로 인도하는 형상이다. 이 一群의 佛像 가운데서 半跏像을 가장 크게 표현하고 菩薩像은 그 좌우에 侍立한 형상으로 半跏像을 中尊으로 하는 彌勒三尊이 중심이 되었음이 분명하며 밑의 蓮花座의 형상으로 三尊 모두 倒置圓錐形인 뿐 아니라 半跏像의 臺座를 중심으로 좌우에 蓮蓬오리가 있고 다시 밖으로 脇侍菩薩의 臺座와의 사이에 荷葉을 배치하여 三尊을 중심으로 표현되었음이 분명하다. 이 三尊의 頭部는 언제 누구의 장난인지 모두 岩面에서 剝離되어 相好의 모습을 알 수 없게 되

었음은 유감이나 여러 像을 통관하면 여타의 菩薩像들을 포함하여 기름 한 尊容에 佛身은 瘦身長軀이고 圓錐形 臺座의 형식 등 三國時代 佛像의 양식이 다분히 나타나 있어 그 조성년대를 서기 六〇〇년경 또는 七세기로 논의되는 근거가 되었으나 여하튼 이 一群의 彫像이 지니는 양식과 더불어 半跏의 자세는 彌勒菩薩 思惟의 像임이 분명할진대 三國期에 유행하던 彌勒信仰의 여운일 것인즉 그 양식과 더불어 三國期 또는 統初에서 七〇〇년을 넘지않는 시기의 조성으로 보인다.

이 半跏像 西側 불과 수 미터의 거리를 두고 如來像과 菩薩像 그리고 獅子像이 조각된 또 다른 一群의 磨崖像이 있다.(圖六) 암석의 손상이 심해서 如來像의 무릎이하와 전체의 좌반부가 탈락되었으나 高古한 양식을 보인다. 如來像은 素髮의 큰 肉髻에 두 귀는 이마 위에서부터 시작되어 특히 長大하고 눈은 俯眼에 좌우의 불은 어렸으나 壯偉한 風이 있다. 가는 목에 三道는 없으며 어깨는 넓어서 丈夫의 골격임은 尊容에서 풍기는 인상과 통한다. 法衣는 通肩에 가슴 앞에 三조의 굵은 U자형 주름이 있고 手印은 通印이다. 下半部는 암석의 탈락으로 불분명하나 손의 위치로 보아 坐像임이 분명하고 오른쪽 무릎 앞에는 옹크린 獅子가 조각되었다. 이 獅子 윗쪽 如來像의 상반신에 해당하는 높이에 如來像을 향하여 左脚을 세우고 右膝을 꿇고 손으로 蓮花를 받들어 공양하는 자세의 菩薩像을 측면상으로 나타내었는데 허리에서는 길게 紕帶가 드리졌고 尊容은 마손으로 분명하지 않고 寶冠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일 뿐이지만 자세의 표현에는 생동감이 넘친다. 이들 전체의 구도로 보아 좌측에도 獅子가 배치되었을 것이고 菩薩 또한 脇侍하여 三尊을 이루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상과 같은 圖像을 종합하면 如來像 臺座 좌우에 獅子를 배치하는 형식은 四세기경의 中國 古式佛像에서 이미 보아 온 바이고 우리나라에서도 八세기 이전의 佛像에서는 왕왕 나타나 는 바 如來像의 手印이나 壯大한 체격 또는 衣紋에서 그 조성을 七〇〇년 이후로 내릴 수 없고 더우기 脇侍菩薩의 佛身의 造型이 옆의 半跏像 群의 諸像과 상통하며 옆에 드러진 紕帶의 표현은 한층 古式이어서 이

二群의 諸像은 동시 조성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 하다.

이들과는 따로 서쪽으로 약 五〇미터의 거리를 두고 全高 二미터의 거의 동향한 또 하나의 磨崖如來坐像이 있다. (圖七) 암석의 剝落이 심하여 상체의 우반부는 완전히 없어졌고 무릎이하의 손상도 많으며 종횡으로 균열이 많다. 그러나 尊容은 방형에 가까워 奉化北枝里, 榮州新岩里·可興里 등 竹嶺을 넘어선 지역에 있는 七세기 후반의 諸像과 상통하며 頭光의 化佛 배치 또한 北枝里磨崖佛과 같은 양식이다. 목은 말아서 三道가 없고 法衣는 通肩임을 분간할 수 있을 뿐 衣紋은 분명하지 않으나 손은 通印임이 분명하다. 무릎은 이례적으로 넓어서(肩幅 九〇センチ미터에 비해 膝幅 二二〇センチ미터) 기형 같이 보이며 이 부분의 衣紋이나 臺座의 형태는 역시 분명하지 않다. 이 磨崖佛은 前記 二個群의 磨崖佛보다는 연대가 늦어서 奉化榮州 등의 磨崖佛과 同代인 七세기 후반에 두어야 타당한 것이다.

이상 三群의 磨崖佛에 관하여 특히 주목되는 점은 이 같이 특기할만한 三國末 내지는 統初의 磨崖佛이 中原지방에서 조성되었다는 사실이 新羅의 佛敎文化가 北方으로부터 전래되었다는 想定을 실정할 때 竹嶺을 넘는 奉化·榮州·軍威 등지에서 統初의 磨崖佛이 조성되고 安東에서 三國時代의 金銅半跏像이 출토되는 등의 사실을 들어 竹嶺이 한 루트가 된다고 보았고 이 竹嶺루트는 忠州에서 丹陽을 거치는 통로를 따랐다고 한다면 또 하나 忠州에서 鳥嶺을 넘는 루트는 ⑥ 善山을 경유하였을 것으로 보여 이 사실은 善山(新羅 때 一善郡)에의 佛敎 初傳과 더불어 善山郡 高牙面 鳳漢二洞 출토의 金銅菩薩像으로 증거를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忠州는 竹嶺路·鳥嶺路의 어느 통로를 택하던 그 분기점에 위치하였으니 이곳에서 三國期의 金銅佛을 비롯하여 統初로 추정되는 磨崖佛像이 조성되어 마땅한 일이다.

四、

忠州 주변에서는 前記한 바와 같이 三國期이래의 주목되는 佛敎遺物이 발견되고 있으나 高麗時代에는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며 더욱이 統一 新羅時代까지와는 달리 寺名이 전하고 있음은 더욱 주목된다. 北에서부터 億政寺大智國師碑(嚴政面 槐東里)(圖八) 靑龍寺普覺國師定慧圓融塔(圖九)·同塔碑·塔 앞 石燈(蘇台面 五良洞)·淨土寺法鏡大師慈燈塔碑(東良面 荷川里)(圖一〇) 同寺弘法國師實相塔(圖一一)·同塔碑(今在 서울景福宮)·上筆面 彌勒里石窟과 石佛(圖一二)·石塔·石燈·幢竿支柱 등을 들 수 있고 忠州市內에는 大源寺 丹湖寺 등에 鐵佛이 전하고(圖一三) 있음도 지적되어야 하겠다. 한편 中原郡의 인접지역에도 적지 않은 遺蹟들이 있으니 堤川邑 長樂里의 七層模塼石塔을 비롯하여 堤原郡 淸風面 邑里의 石造如來立像, 同郡 寒水面 松界里의 獅子頻迅寺九層石塔과 德周寺磨崖佛, 槐山郡 延豐面 院豐里의 磨崖佛坐像, 同郡 長延面 台城里의 覺淵寺石造如來坐像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은 모두 國家文化財로 지정된 것들이지만 이 외에도 忠州 丹湖寺三層石塔⑦, 中原郡 可金面 創洞里의 五層石塔⑧과 磨崖佛⑨, 同郡 薪尼面 院坪里의 石造如來立像·三層石碑·石燈⑩, 同郡 嚴政面 槐東里 白雲庵鐵佛坐像⑪ 등과 인접군인 槐山郡 長延面 台城里 覺淵寺通一大師塔과 塔碑⑫, 同郡 七星面 外沙里의 浮屠(今在 서울 槩華閣)⑬·幢竿支柱⑭ 등과 앞으로의 조사에서 밝혀질 것까지 계산한다면 실로 무수하여 마치 忠州를 중심으로 한 大曼茶羅를 보는 듯 하다.

이상과 같은 遺蹟들은 모두 寺院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배경에는 필연코 사람과의 인연이 깊었을 것이니 高僧의 浮屠나 塔碑가 다수 존재함도 주목되는 일이다.

예컨대 覺淵寺 通一大師는 그의 塔碑 碑文의 凡闕이 매우 심하여 三五〇〇여자의 碑文 중에서 二六〇여자를 읽을 수 있을 뿐임으로 출생에

서 入寂에 이르는 일체의 行歷을 알 수 없으나 아직까지의 고증 결과로는 高麗 太祖 光宗年間의 名僧으로 짐작되며 碑文 中에 「自口來登衆學有稻麻之列」의 문구가 있음을 보면 그의 명성이 대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淨土寺의 法鏡大師는 新羅 憲康王 五年(八七九)에 출생하여 孝恭王 一〇年(九〇六)에 入唐하였다가 景哀王 二年(九二五)에 歸國하니 王은 國師를 삼고 칭하여 「中州淨土蘭若」의 住持로 있게 하였다. 「聞風」하여 「悅語者百千」이오 「大師暫駐懸軒尋鋪禪榻四方來者皆滿茅堂森若稻麻」였다. 高麗 太祖 二四年(九四一)에 坐滅하니 俗年 六十三에 僧臘 四十一이었다.

또 同寺 弘法國師는 新羅 神德王(九二一—九一六) 때 출생하여 十二세에 出家하여 入唐修業하였다. 高麗 成宗은 大禪師、穆宗은 國師의 號를 내렸다. 「皇齡然後屆于開天山淨土招提遁世韜口忘機」하였으되 「爾等莫墜龜氏之宗慎守鷲峯之教」이라고 일르고 「語訖結跏趺坐口」하니 「葬于淨土寺坎方恆石峯前」하였다 한다. 國師의 入寂年月이 있는 부분이 剝落되었으나 實相塔碑의 건립이 高麗 顯宗 八年(一〇一七)임을 감안하면 짐작이 간다.

億政寺의 大智國師는 高麗 忠肅王 一五年(一一二八)에 출생하여 十四歲에 重興寺 圓證國師에게서 祝髮하였다. 國一智嚴尊者는 「此子當爲王者師」라 하였고 일찌기 大興寺 住持로 있을 때 탄식하여 가로되 「出家而爲住持非吾素志也」라 하였다. 禩王 九年(一一八三)에는 王師圓應尊者로 册命하여 「備儀遣使邀安于忠之億政」하였다. 이후 여러 곳으로 移錫하다가 昌王 一年(一一八九) 다시 億政寺로 돌아왔다가 高麗가 망하기 직전인 서기 一三九二년 六月에 入寂하였다.

靑龍寺의 普覺國師는 高麗 忠肅王 七年(一一三二)에 출생한 麗末의 高僧이다. 忠惠王 二年(一一三一)에는 禪試上科에 올랐고 恭愍王 五年(一一五六)에는 忠州 靑龍寺 西麓의 溪谷을 따라 올라가니 「有屋舊址」가 있어 「躬搬土石經營無禪」하였고 「旣成扁以宴晦」라 하였으니 「蓋自表其心迹也」라고 그의 塔碑에 있다. 그러나 檜巖寺 住持가 되라는 명을

받자 그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金龜山·五臺山 등을 전전하다가 恭愍王 二三年(一一七四)에는 內佛堂에 불러갔으나 「夜半潛出」하였다가 禩王 四年(一一七八)에는 雉岳에서 다시 宴晦庵에 보내어 國師로 봉하고 忠州 開天寺^⑤에 있게 하였다. 王은 다시 光巖寺 住持를 겸하게 하였으나 國師가 이를 고사하자 王은 「開天是師終住資蔭之地光巖是余請來演法之場兼領何害」라 하니 「師不得謝」하였다 한다. 高麗가 망하자 其位를 辭하고 靑龍寺에 移錫하였다가 九月에 入寂하니 「門人積薪茶毗于宴晦庵之北麓」하였다. 王은 「普覺」이라 諡號를 내리고 塔名으로 「定慧圓融」이라 하였으니 內臣을 差遣하여 「監其厝骨又勅工造浮屠」하여 十二月에 靑龍寺北峯에 세웠다. 이상에서 보면 普覺國師는 靑龍寺와 인연이 깊지만 淨土寺에도 머물러 있었으니 淨土寺의 비중이 짐작된다.

五

文化는 사람들의 이동을 따라 전파된다. 이 많은 高僧들이 駐錫하는 곳에 그를 따르는 僧俗들이 모이고 伽藍 또한 흥성하였을 것이니 이에 따르는 文化 또한 찬란한 빛을 발했을 것이다. 忠州 주변의 이들 많은 遺蹟에서 지금까지 원형을 유지해 온 遺物들은 왕년의 성황에 비하면 百의 一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나 이들을 통하여서만도 三國이래 연면히 이어오는 佛教美術의 흐름을 짐작케 하니 가히 文化의 한 중심지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근년에 실시되는 忠州뎬 건설로 인한 수불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先史時代 遺蹟이 속속 밝혀지고 있음도 주목되는 일이다.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한 가지 지적되어야 할 사실은 大源寺와 丹湖寺의 鐵佛(圖 一四)樣式이다. 그 중에서도 大源寺鐵佛은 대표적이어서 尊容의 표현은 다른 어느 지방의 佛像과도 구별되는 특징이 나타나 있다. 相好는 팽창감이 있어 거의 圓에 가깝게 둥글고 頭髮은 螺髮에 肉髮가 크며 白毫孔은 크고 깊어서 특히 눈에 띈다. 두 눈은 옆으로 길게

돌아가면서 눈꼬리가 위로 올라가 소위 鳳眼을 연상케 하며 코와 입은 작으나 인중이 짧고 입아귀가 밑으로 처져서 지나칠 정도로 근엄해 보인다. 丹湖寺鐵佛은 이에 비하면 훨씬 온화한 표정이어서 다른 지방의 高麗時代 佛像과 상통하는 바 있다. 이 兩像은 尊容에서 이 같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三道의 표현, 通肩의 着衣法과 어깨에서 팔에 이르는 衣紋 특히 두 무릎에 있는 수평의 衣褶과 두 다리 사이 앞에 부채살 같이 처리된 衣端, 또는 가슴 앞의 裙衣 매듭의 표현 등 완전히 동일한 양식이다. 특히 두 손은 모두 따로 만들어 끼우도록 되었고(丹湖寺佛像의 손은 後補物) 위치나 방향도 동일하다. 이러한 양식은 高麗 초기에 조성된 다른 어느 鐵佛과도 구분되는 독특한 양식으로서 가히 忠州지방에 있었던 특이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六、

이상과 같은 忠州지방의 佛教美術에서 나타나는 특색은 三國時代 이래의 文化的 地理的 空間은 뿌리에서 연유함은 물론이며 그러한 증표가 이제까지 지적인 바와 같이 忠州를 중심으로 인근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三國時代 이래의 유물로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끝으로 忠州의 地理的인 위치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현재 서울에서 忠州는 利川 長湖院을 거치는 대로로 불과 수시간에 도달할 수 있으나 이 길은 예전부터 있었던 韓半島 중앙부를 縱貫하는 도로였다. 한편 南漢江을 따라 驪州 楊平을 거쳐 서해안으로 진출할 수도 있으며 또한 忠州에서는 前述한 바와 같이 丹陽을 거쳐 竹嶺으로 통과하고 水安堡를 거쳐 鳥嶺에 통한다. 水安堡를 지나 伊火嶺이나 鳥嶺關門으로 가는 대로를 따라가면 우측 岩上에 院豊里磨崖佛이 있거나 이와 같은 店村에 이르러 慶尙道 땅에 들어서게 되지만 水安堡에서 앞은 고개를 넘자마자 좌측으로 뚫린 길을 따라가면 釜山을 뒤에 업고 布巖山 麻骨山으로 분지를 이루며 앞에 月岳의 雄姿가 보이는 곳에 石窟을 비

롯한 一大寺院이 경영되었으니 이곳을 彌勒里라 부르고 이 寺院을 「彌勒大院」이라 고증하고 있다.① 이 곳에는 石窟 안의 石佛을 主尊으로 그 앞에 石塔·石燈·幢竿支柱·龜趺 등이 전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길은 다시 두 곳으로 갈라진다.

하나는 동쪽의 하늘재(寒暄嶺·大院嶺) 또는 지름재(鷄立嶺·麻木峴)이니 이는 시대를 달리하여 두 가지로 불리웠던 것이다. 모두 中原과 嶺南을 연결하는 오래된 통로이니 지름재를 넘어서면 바로 현 행정구역으로 慶北 聞慶郡 觀音里로 나가게 되며 이곳에는 羅代 이래의 石佛과 石塔들이 전하고 있다. 반대쪽에서 말하면 新羅에서는 阿達羅尼師今 三年(一五六)에 이 길을 개척하여 북방진출을 꾀하였던 점에서 주목되니 이는 竹嶺개척보다 二년 앞서는 일이다.

또한 길은 寺址 앞을 흐르는 溪谷을 따라 내려가는 길이니 堤原郡 寒水面 松界里에 이르는 동안 德周山城이 있고 山城 안에는 德周寺에 속했던 大磨崖佛이 있으며 高麗 顯宗 十三年(一〇二二)에 건립된 獅子頻迅寺九屬石塔에 다나른다. 이 기록에 德周山城이 있음도 짐작치 않으나 獅子頻迅寺石塔造塔記에는 「永消怨敵」이라는 문구가 있는 점을 보면 이 길은 군사적으로도 중요하였던 모양이며 이 길은 또한 松界里에서 丹陽을 거쳐 竹嶺으로 통하기도 한다.

文化的 전파는 사람의 이동에 달렸지만 사람은 교통로를 따라 이동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忠州의 위치가 중요함이 이해될 것이다.(一九八三、九)



圖1) 建興五年銘金銅光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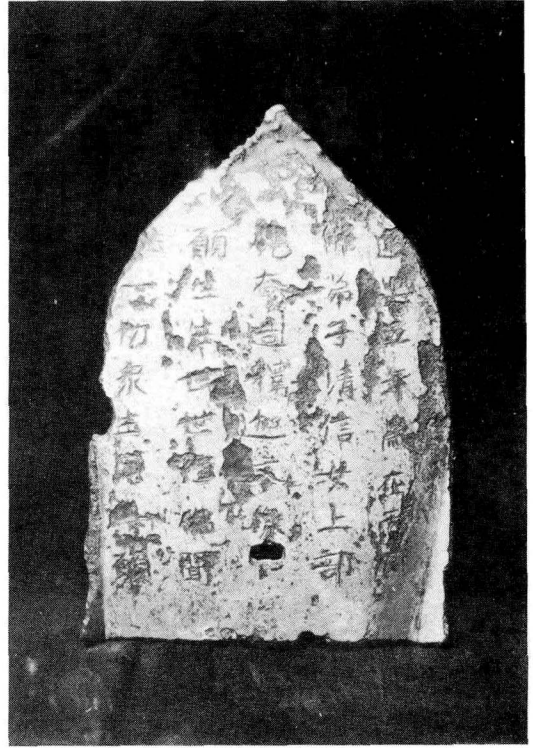


圖2) 建興五年銘金銅光背 뒷면

〈註〉

① 이 金銅光背에 관하여 발견자인 黑板勝美氏는 三國時代에 人名 위에 出身 地名을 붙여서 표현하였던 점, 出土地가 百濟의 故地인 점, 百濟에서도 年 號를 사용하였으리라는 점 등에서 百濟佛인 동시에 「建興」은 法王의 逸年號 로 보았다(三國時代朝鮮における唯一の金銅佛) 『考古學雜誌 第十五卷 第六 號, 一九二五』. 中吉功氏는 百濟說을 따르되 製作年代에 있어서는 聖王 十四年(五三六)을 취하면서 「建興」은 聖王代의 逸年號이며 新羅 法興王이 바로 이 해에 「建元」의 年號를 쓰기 시작한 사실과도 대비시키고 있다(新 羅·高麗의 佛像「二支社, 一九七三」). 松原三郎氏도 百濟說을 취하며(飛鳥 白鳳佛と朝鮮三國期の佛像) 『美術史 六十八號, 一九五八』, 關野貞氏는 발견 지가 南方인 점에서 百濟說을 취하고 年代는 威德王 四三年(五九六)으로 추 정하였다(朝鮮美術史) 『朝鮮의 建築と藝術』所收). 이와 같은 종래의 百濟 說에 대하여 黃壽永教授는 「年代는 百濟 威德王 四三年(五九六)으로 推定 되어 왔으나 高句麗의 作品으로 再檢討되어야 할 것이다(金石遺文, 一志社, 一九七六)라 하여 異議를 제기했고 수년 후에는 「그동안 百濟作으로 알려 졌으나 근년에 이르러 高句麗 作品으로 추정하기에 이르렀다」고 확인하고 있다(韓國佛像三百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調査研究報告書, 一九八二』. 한편 大西修也氏는 高句麗說을 취하면서 「黑板勝美氏가 收拾한 中原郡 忠州 一帶는 元來 高句麗의 舊領이며 그 후 三國間の 抗爭을 거쳐 新羅領이 되었 던 곳이다. 따라서 同地가 百濟文化圈에 屬했었는지의 여부는 의문이고 오 히려 北의 高句麗文化의 영향이 인정되는 점으로 미루어 同 光背도 高句麗 製로 보아야 하겠고 逸年號를 사용하는 造像銘의 記載形式도 高句麗系統에 속하여 百濟製인 可能性은 거의 없다」(百濟佛立像と「光三尊形式」·『ミ ューゼム 三一五號, 東京國立博物館, 一九七七)라 하였으나 製作年代에 관한 言及은 없다.

② 建興五年銘金銅佛光背의 製作國家에 관한 百濟說, 高句麗說의 兩說의 주장 에는 그럴만한 근거가 있겠지만 최근에 발견된 中原郡 可金面 龍田里의 高 句麗碑와 清原郡 北一面 飛中里의 石造三尊像과 石佛立像은 高句麗說의 유 리한 증거로 삼을 수도 있겠으나 한편 塔坪里부근에서는 高句麗系의 瓦當과 동시에 百濟系 瓦當도 발견된다는 사실(鄭永鎭·中原鳳凰里磨崖半跏像과 佛

·菩薩群―考古美術 一四六・一四七合輯、二四頁)로 이루어 앞으로 신중환
 考究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 기본적으로 銘文에 보이는 「上部」가人名의
 에 붙인 출신지명이라면 이에 대한 考證, 光背의 火焰文양식이 扶餘軍守里
 考址 출토의 金銅光背片의 火焰文과 흡사하고 化佛의 형식 특히 蓮花座의
 표현양식은 益山蓮洞里 石佛光背의 化佛樣式과 거의 동일한 점 등은 앞으로
 더욱 考究되어야 할 점인가 한다.

③ 一九一七年 수리 당시 六層屋身石과 基壇 밑에서 舍利莊嚴具가 발견되었고
 그중에 유리製 舍利瓶, 銅鏡 二面을 비롯한 木製·銀製의 容器 瓦片이 있
 있는데 銅鏡은 高麗時代의 유물이므로 高麗時代에도 해체보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현재의 상태는 新羅石塔으로서 불규칙한 상태에 있다.

④ 이塔의 建立年代에 관하여 高裕燮先生은 「韓國塔婆의 研究(同和出版公社)
 에서 新羅 神文王代로, 同和出版公社 「韓國美術全集」 石塔편에서는 元聖王
 代의 건립이라 는 一說에 言及하면서 八세기로, 中央日報社 「韓國의 美」 石
 塔편에서는 八세기 후반으로, 文化財大觀 國寶篇(文化財管理局)에서는 文聖
 王代 건립의 傳說이 있다고 하면서 八세기로 추정하는 등 兩說이 있다.

⑤ 註②의 鄭永鎬 前掲論文 참조.

⑥ 田村圓澄教授는 「新羅의 彌勒信仰(田村圓澄·秦弘燮 共編 「新羅と日本古代
 文化」所收, 吉川弘文館, 一九八一)에서 竹嶺루트와 함께 鳥嶺루트를 설정하
 면서 도 增補文獻備考에 있는 「鳥嶺有三路南有伊吾嶺北有大院嶺」이라 한 가운
 데의 어느 길인지 분명히 지적하지 않았으나 아마도 「大院嶺」일 가능성이 많
 다. 大院嶺은 곧 鷄立嶺이며 三國史記 何達羅尼師令 三年條에 「開鷄立嶺路」
 라 보여 이는 竹嶺開通에 앞서기 二年前이며 同書 列傳 金庾信上條에는 「麻木
 峴」으로, 溫達條에는 「鷄立峴」으로 나와 있어 三國 내지 統一新羅時代의 왕
 대는 주로 鷄立嶺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⑦ 地方文化財 六九號

⑧ 鄭明鎬·中原郡倉東里五層石塔에 대하여(考古美術 一一五、一九六〇) 참조.
 地方文化財 八號

⑨ 金三龍·韓國彌勒信仰의 研究(同和出版公社, 一九八三) 참조, 地方文化財
 七六號

⑩ 鄭永鎬·中原郡新泥面院坪里石造遺物(考古美術 二一一、一九六一) 참조.

地方文化財 一八號

⑪ 地方文化財 二一號

⑫ 鄭永鎬·覺淵寺遺物調査略報(考古美術 七一二、一九六六)·葛城末治·覺淵
 寺通一大師塔碑の年時と其撰者に就て(朝鮮金石巧所收) 참조, 塔碑는 地方
 文化財 二號

⑬ 鄭永鎬·葆華閣의 槐山浮屠(考古美術 五一一、一九六四) 참조

⑭ 註②의 鄭永鎬 前掲論文 참조

⑮ 開天寺는 곧 淨土寺로서 寺名을 혼용한 듯하다. 淨土寺의 法鏡大師塔碑
 에는

後晉高麗國中原府開天山淨土寺教諭法鏡大師慈燈之塔碑
 라고 弘法國師碑에도

大宋高麗國中原府開天山淨土寺圓光遍照弘法大禪師之碑

라 있다. 東國輿地勝覽 忠州牧 山川條에는 「淨土山·云開天山」이라 있어 山
 號를 혼용하였으며 同 佛宇條에는 「開天寺在淨土山」이라고 있음을 보면 淨
 土山과 開天山, 淨土寺와 開天寺는 모두 혼용한 듯하며 일찌기 一九一四年
 에는 日人 渡邊業志가, 또 最近에는 忠州 澁水沒地區에 대한 事前 發掘調査
 (檀國大博物館 담당) 結果 淨土寺址에서 각각 「開天寺」銘의 古瓦가出土된
 사실은 마땅히 참고되어야 할 것이다.

⑯ 申榮勳·彌勒大院의 研究(考古美術 一四六、一四七合輯、韓國美術史學會,
 一九八〇).



圖3) 中原塔坪里七層石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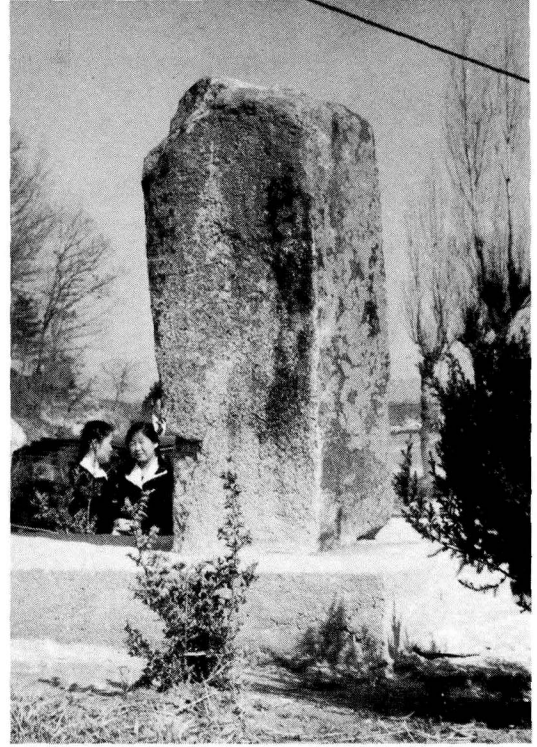


圖4) 中原高句麗碑(1979. 4. 5)



圖5) 中原鳳凰里磨崖半跏像吳 菩薩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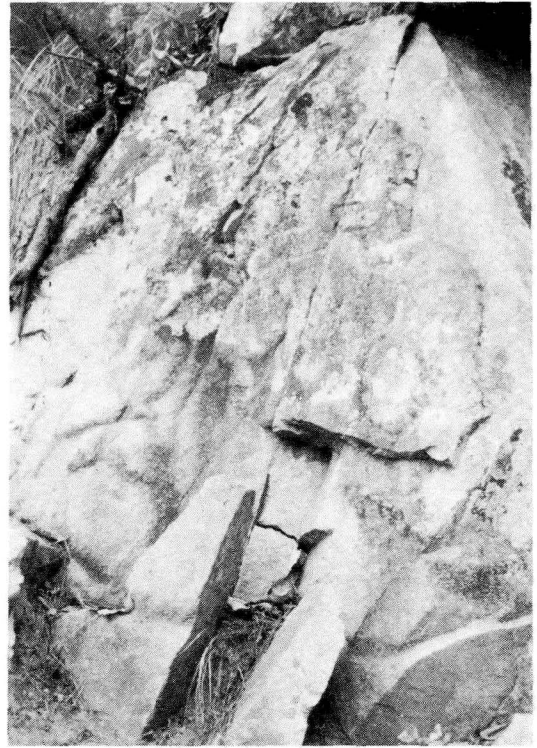


圖6) 中原鳳凰里磨崖如來坐像과 供養像



圖7) 中原鳳凰里磨崖如來坐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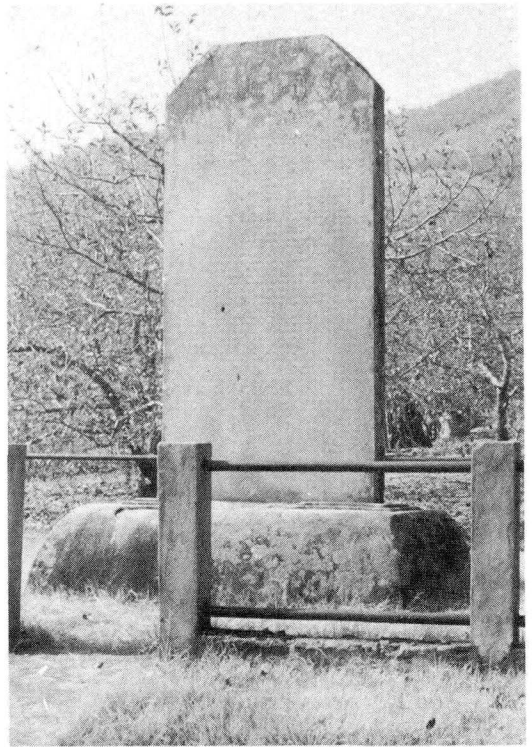


圖8) 億政寺大智國師碑



圖9) 青龍寺普覺國師定慧圓融塔



圖10) 淨土寺法鏡大師慈燈塔碑



圖 11) 淨土寺 弘法國師實相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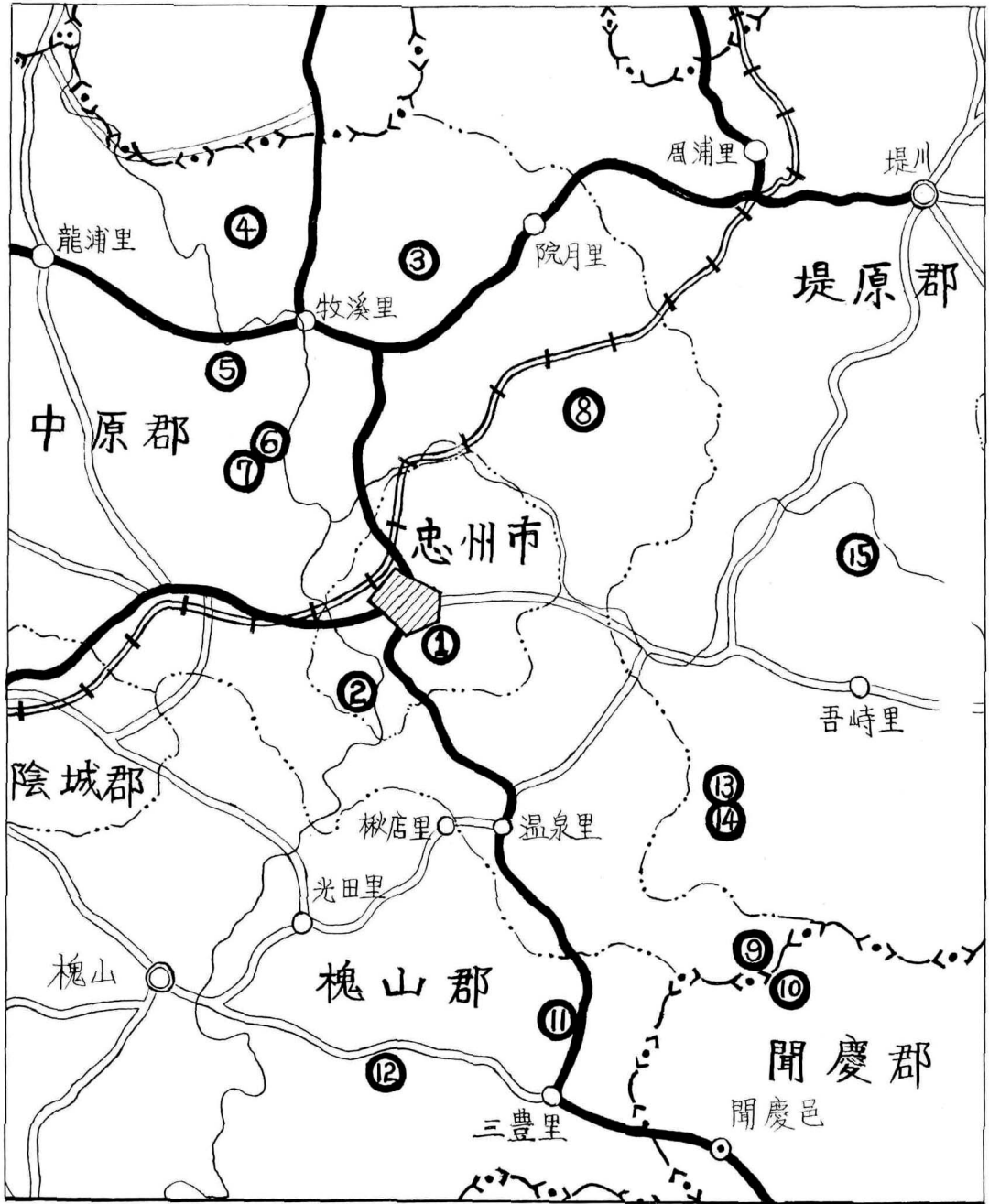
圖 12) 中原 彌勒里 五層石塔



圖 13-1) 忠州鐵佛坐像



圖 13-2) 丹湖寺 鐵佛坐像



- | | |
|---------------|-------------|
| ① 忠州鐵佛 | ⑨ 彌勒里石佛石塔石燈 |
| ② 丹湖寺鐵佛 | ⑩ 觀音里石佛石塔 |
| ③ 億政寺大智國師碑 | ⑪ 院豐里磨崖佛 |
| ④ 青龍寺普覺國師塔碑燈 | ⑫ 覺淵寺石佛 |
| ⑤ 鳳凰里磨崖佛 | ⑬ 獅子類迅寺塔 |
| ⑥ 塔坪里石塔 | ⑭ 德周寺磨崖佛 |
| ⑦ 龍田里高句麗碑 | ⑮ 清風石佛 |
| ⑧ 淨土寺法鏡大師慈燈塔碑 | |

圖 14) 忠州·中原地區 遺蹟分布圖